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7호 [루체 제25055호] 주제 104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훌륭히 완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내이며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일떠섰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굳게 믿으시고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 를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 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시었다.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기발을 펼펼 휘날리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열혈청춘들은 낫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리면서 백두전구에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지난 9월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력사에 긍지 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갈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으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그들모두를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발전소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붉은기전통이 창조된 스스러운 백두대지에 피끓는



청춘의 기상과 용감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며 거연히 솟아오른 발전소는 당의 영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청년들이 장장 70년의 승리의 혁사를 아로새겨온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선물이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은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김정일동지의 유흔을 관철하고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백두산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짐있게 과시한 혁사적사변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이 3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빛나는 초상기가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또 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청년들이여! 백두의 칼바람에 둑을 닦고 조선혁명의 칠로따라 폭풍처 내달리자!》, 《청년들이여! 강성국가의 문제를 남먼저 다는 영웅적신화의 창조자가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연에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상징하는 쇄불봉과 《영웅청년》이라는 글발이 세겨져 있고 주변 산들에는 《청년중시사상 만세!》, 《청년강국》, 《백두청춘》이라는 구호와 표어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통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파번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장, 리상원량강도당위원회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지휘관, 돌격대원들, 민군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 청년동맹일군들, 발전소건설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들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4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

미더운 청년전위들!

여러분!

동지들!

오늘 우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축하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위대한 우리 당을 따르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불굴의 기개마냥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거연히 일떠선 것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장식하는 대경사이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는 일대사변입니다.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된 백두산 아래 여기 발전소건설장에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은 애국충정의 고귀한 퍼땀을 뿌리며 결사판철의 정신으로 청춘대기념비를 온 세상이 부려올게 높이 일떠세움으로써 당중앙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당 창건 일흔돐까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선군시대 청춘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 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청춘의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의 청년들은 조선청년운동력사에 가장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여기 백두대지에 아로새겼습니다.

우리 당의 전위투사들인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수도 평양



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높고 험한 이 산산계곡에서 해를 두고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바쳐 싸웠습니다.

한두해도 아닌 오랜 나날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함마와 정대로 천연암반을 깨내고 산을 들어내면서 언제를 쌓고 물길줄을 한치 한치 열어나간 돌격대원들의 로력적위훈을 그 어떤 글과 말로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셀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간 돌격대원들과 서두수의 차이한 물속에 뛰어들어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어 레루를 떠받든 결사대원들을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을 위해 바쳐온 청년들의 혁명성과 희생성, 애국심앞에 서는 누구나 다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이 안겨준 백두청춘의 담력과 용맹으로 낫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여 10년동안에 한 일파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파 120여일동안에 해제끼고 1호발전소 언제를 완공한 것은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총결기해 나선 백두청춘들과 건설자들의 애국헌신이 넣은 충정의 열매이며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영웅청년신화입니다.

1호발전소 언제를 쌓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들로 자랐으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를 현실로 증명하였습니

저기 바라보이는 저 높이 쌓인 언제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뿌적이며 1호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영웅청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입니다.

발전소건설의 바쁜 속에서도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해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꾸려주고 발전소지구의 수립화, 원림화도 도맡아나선 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군인들의 투쟁기풍은 당정책을 열이면 열, 배이면 배 하나도 빠짐없이 결사판철하고야마는 우리 청년들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솟아오른 대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창조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번쩍거리는 도시의 번화가가 아니라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 출선 달려와 당의 뜻을 끊임없이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 향심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청년들은 없습니다.

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자랑스러운 투쟁모습을 보면서 눈물겹도록 동무들이 고마웠고 동무들 모두를 지하들이 들리도록 두팔들어 높이 떠받들어주고 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혁명 앞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 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삶을 박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열점지역, 분쟁지역들에서 청년 문제가 제일 난문제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걸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수백만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세계를 암도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있으며 당중앙이 작전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의 영도는 조선청년운동의 생명이며 청년대군의 위력은 당의 영도를 받는데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땅심을 지니고 언제나 당을 따라 끌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백두의 칼바람에 뚫을 탈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 내달리자!》 우리 당의 이 믿음의 구호, 투쟁의 구호가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맥박치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둘 끊어야 온 나라가 둘 끊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빼랴야 부강한 미래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젊음으로 약동하며 비약하는 위대한 조국은 지금 새로운 운운에 창조되는 강성국가건설의 활무대로 우리 청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펼쳐나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움으로써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한겹의 후회도 없이 빛내여나야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의 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돌격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포함해 전개하여 그 어디나 청년관으로 흥성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문화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청년교양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일대 사상풍세이며 제국주의 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사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고수하기 위한 대사상전입니다.

자라나는 세 세대들은 물론 온 나라 근로자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이 영웅청년신화를 어떻게 창조하였으며 악전고투의 나날에 훌린 애국의 피와 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깊이 새기고 백두청춘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선전망파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 간진 일본새와 혁명적탁관주의를 널리 소개선전하여 온 나라가 그들을 따라배우는 사업으로 벅적 끌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최대의 중대사이며 혁명의 전략적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 틈틈히 키움으로써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업적을 끌어들이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기동으로 되고있는 백두대지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승리의 만세소리가 제일먼저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합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전체 건설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이어 현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에 나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비싸 조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으면서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혜산—삼지연사이넓은 철길건설을 다그치고 삼지연군을 조선혁명의 발원지답게 더 잘 꾸리며 땅강도의 갑작농사를 비롯한 경제사업전반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하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의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보람찬 전군길에서 당중앙은 청년들을 믿고 청년들은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총베진 합시다.

백두대지에 뿐만 청춘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토록 기억할것입니다.

존엄높은 백두산영웅청년강국의 주인들, 우리 당에 끌어들이 충직한 청년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우리 당의 마음의 기동,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공사들과 달리 쇠약의 조건에서 진행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면 청년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용솟음칩니다.

우리 당은 확실히 북중의 가장 큰 북인 청년복이 있습니다.

당중앙은 피타는 노력과 희생적인 투쟁으로 우리 당의 결심은 곧 현실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청년전위를 위하여 끝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용솟음칩니다.

우리 당은 확실히 청년들을 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발전소 건설에 참가하여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 전체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이렇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장에서 고보니 저멀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우리들을 끌어보시며 장하다고 축복해 주고계실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체보인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적인 여기 대자연에 조건투장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쏘아박고 만사로 풀어내기는 곧바로의 정신이며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이며 형언 할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동지적 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난을 끌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입니다.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될 것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체보인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나 내각에 달려줄수도 있는 발전소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제로 달려준 것은 청년동맹이 우리 당의 구상을 무조건 판별하는 힘있는 전투조직이며 중요하게는 그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자는데 있다고 여러 차례 교시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믿음과 함께 청년들의 지향을 담아 둘격대의 명칭도 뜻깊게 부르도록 해주시고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특별비행기까지 떠우시여 돌격대원들에게 사랑의 솜옷도 보내주시였습니다.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 불편하신 몸으로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당과 국가의 천만 중대사도 뒤로 미루시고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부터 찾아오시여 청년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애국헌신의로고는 발전소의 그 어디에나 가슴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청년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선 것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운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발전소언제가 완공되고 백두산지구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굳게 단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성과로 됩니다.

10여년간 걸친 자연파의 간고한 대격전속에서 당중앙파 운명의 퍼풀을 잊고 죽어도 면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영웅들, 청년핵심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입니다.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율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 것은 몇십, 몇백만 kW의 전기를 얻는 것에 비할수없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될 것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체보인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가 창조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적인 여기 대자연에 조건투장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쏘아박고 만사로 풀어내기는 곧바로의 정신이며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이며 형언 할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동지적 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난을 끌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입니다.

자라나는 세 세대들은 물론 온 나라 근로자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이 영웅청년신화를 어떻게 창조하였으며 악전고투의 나날에 훌린 애국의 피와 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깊이 새기고 백두청춘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선전망파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 간진 일본새와 혁명적탁관주의를 널리 소개선전하여 온 나라가 그들을 따라배우는 사업으로 벅적 끌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최대의 중대사이며 혁명의 전략적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 틈틈히 키움으로써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업적을 끌어들이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혁명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기동으로 되고있는 백두대지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승리의 만세소리가 제일먼저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합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전체 건설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이어 현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에 나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비싸 조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으면서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것을 명령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태양민족의 냇이 깃들어 있고 조선혁명의 길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숭엄히 솟아 빛나는 백두전구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터치는 승리자의 선언이 힘있게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일떠선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함에 이어 주체혁명의 계주봉을 상징하는 희불봉과 《영웅청년》이라는 글말이 새겨진 1호발전소 언제앞에서 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가 3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백두산칼바람에 둑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변의 침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들의 전투적 기상과 위훈을 힘있게 멀치며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보관듯이 일떠세우고 승리의 개가를 하늘 땅이 들썩하게 터치게 된 열혈청춘들의 풀없는 공자와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장소에 나오시였다.

발전소건설을 위한 격전의 나날에 꿈결에도 그리며 자나깨나 앙기고싶었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뵈옵는 순간 전제 출연자들은 쏟아지는 눈물로 두불을 적시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 중시사상과 업적을 끌없이 빛내이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병도로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들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담배를 보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불멸의 위훈을 창조한 그들을 축하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



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김양건동지, 파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장,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청년동맹 일군들, 발전소건설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대합창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설화와 대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찬가》로 시작되었다.

절세의 위인칭송의 승업한 선률이 은은히 흐르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의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판철하였다. 충정의 보고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삼가 드리었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예지와 정력적인 병도로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시켜나가시는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끝없는 충정의 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주체의 대업을 사랑의 억센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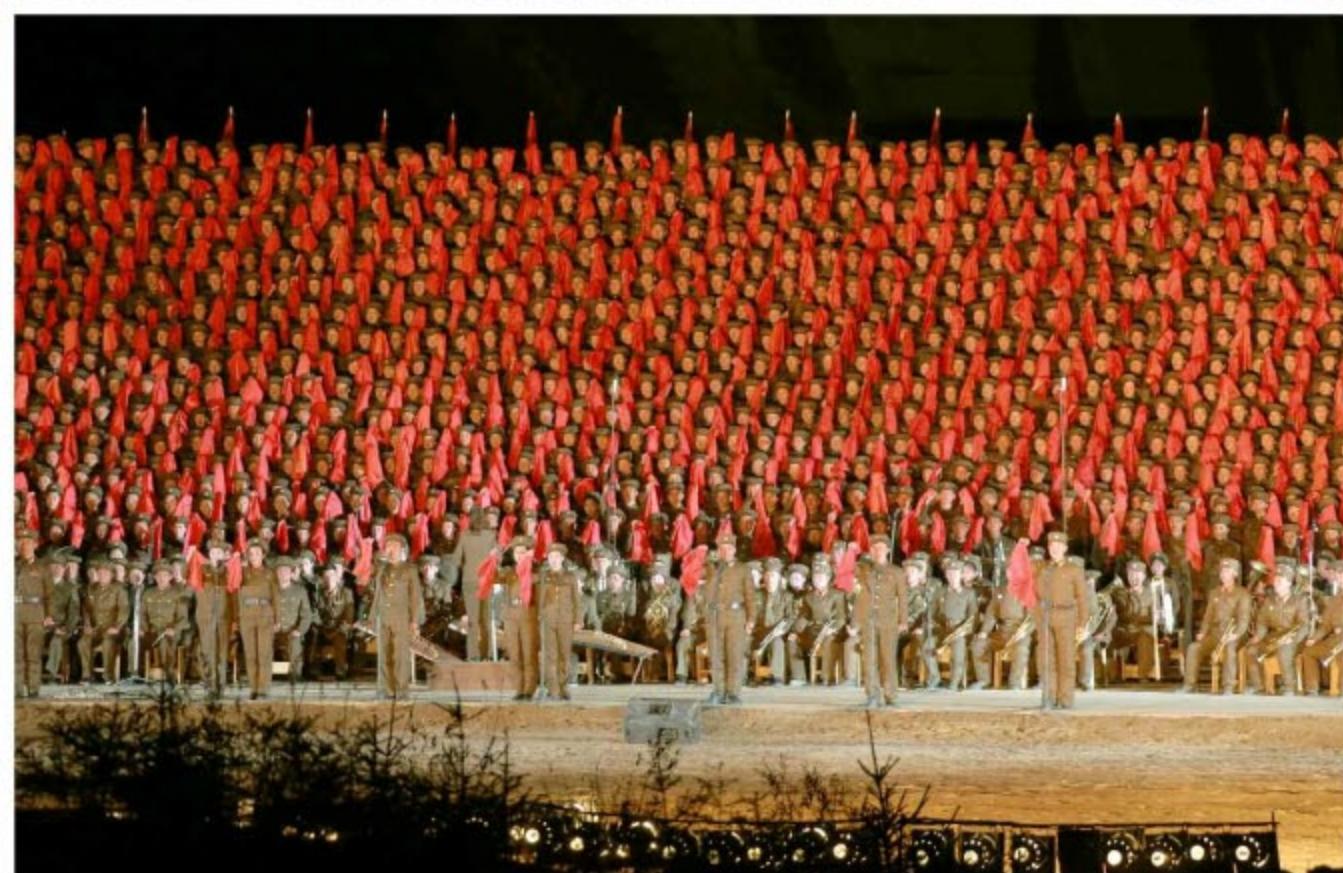
이끌어 인민의 제일락원,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대한 조선의 기상, 높뛰는 조선의 실장, 눈부신 세기의 태양으로 밟들어나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충정의 수령송가, 위대한 장군찬가가 장엄하고 격조높이 터져올라 백두의 하늘가에 매아리쳤다.

한공의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사상과 신념의 강자, 청년대학졸업증을 받은 당의 참된 청년전위로 성장한 나날들을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항일혁명선열들의 혁명적투쟁기풍과 랑만,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선군청년문화를 꽂고워온 백두청춘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무용과 기악합주, 북춤으로 홍겹고 경쾌하게 형상한 기악합주와 대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5 면 으로 계 속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훌륭히 완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면 애서계속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며 우리 청년들이 당의 평도따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드렸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여 백두청춘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과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가장

값높이 빛내여주시고 백두산청년강국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승의 보검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저울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을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평도따라 주체적 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혁사와 전통을 넘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이며 조선청년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파시해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열화와 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정신, 창조적지혜와 불같은 열정으로 발전소완공의 날을 안아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례프를 끊으시였다.

준공식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백두대지의 푸른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인민군인들과 함께 혁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당중앙을 응위하여 성새,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 하늘에 달은 조선청년들의 기상인양 웅장하게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 언제 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활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언제나 주체혁명의 성지를 더욱 빛내이는 보람찬 전투에서 당의 척후대, 익숙부대의 위력을 펼쳐가는 백두청춘들과 함께 계시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자라나도

록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러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의 피더운 심장으로 만민을 과감히 향하고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일떠세운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석에 앉혀 궁지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회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발전소건설자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청

년들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결정체이며 증건자인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 언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백두대지의 산발들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70년 혁사는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맹장들로 키운 혁사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백두청춘들이 백두의 냄과 기상을 안고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이 펼치는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마다에서 더욱 용감하게, 대담하게, 질풍같이 전진해나감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 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황리에 진행



3 면에서 계속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연무대에 기타대명창 《단숨에》, 민족기악과 대합창 《군민아리랑》이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글발을 심장깊이 조아

박고 낯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조

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불변의 철리를

거창한 실천으로 보여주며 백두의 성지에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온 청년돌격대원들.

힘있고 박력있는 선율에 맞추어 군민이

마음도 하나로 목소리도 하나로 합쳐 심장

으로 부르는 노래들은 청년돌격대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투쟁모습, 우리 당

군민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격

동적으로 보여주었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힘을 물고 날

뛰는 원쑤들에게 철주를 내리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김정은혁명강군과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의 절승불패의 위용을 떠치며 선동파 대합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통천 조선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가 물아치고 세대가 열배면 바뀌여도 변함없을 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한 대합창 《조선의 모습》으로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우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키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억세여진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절승불패이라는 것을 선언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이 끝나자 영광의 10월을 맞으며 조선영웅청년들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축포가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백전백승 청년강국의 휘황찬사를 축복하여 장쾌하게 러져오르

위대한 당을 따라 끝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 전투적기개와 당의 두리에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통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파 의지를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대합창 《적기가》, 《불타는 소원》으로 끝났다.

우리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우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키워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억세여진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절승불패이라는 것을 선언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이 끝나자 영광의 10월을 맞으며 조선영웅청년들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축포가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건설자들과 함께 백전백승 청년강국의 휘황찬사를 축복하여 장쾌하게 러져오르

는 환희의 축포, 승리의 축포를 뜨거운 격정속에 부감하시였다.

젊음의 힘이 치솟는 영웅청년들의 기상인양 창공높이 솟구쳐올라 백두의 하늘을 천색만색으로 황홀하게 물들이는 축포들과 언제우에서 쏟아져내리는 불꽃포를 바라보며 청년돌격대원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발전소를 일떠세운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기쁨의 눈물속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환호성을 터치고 또 터쳤다.

백두대지에서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아로새긴 영웅청년들의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통쳐 언제나 평화로 폭풍쳐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며

10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볼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는 군민청년대합창공연을 진행한 백두청춘들이 앞으로도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뜻과 이어놓고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며 당의 척후대, 의족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출연들과 관람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전구의 전사들을 찾아 또다시 불멸의 자우을 수놓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여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정치보도반



